

야3당 탄핵안 발의 불발... 9일 표결 유력

국민의당 박 위원장, 2일 표결 반대 "가결이 목적이어야" ... 9일 표결 여부 추후 협의 통해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긴급급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민의당의 반대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이로써 2일 본회의의 표결은 불발됐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8분간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 1호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 대표와 심 대표는 이날 야3당 공동명

의로 탄핵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결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9일까지 (새누리당 비박계의) 변화를 보고 또 국민의 뜻을 여론도 보면서 9일 (표결)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3당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상 2일 본회의 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후 첫 본회의는 8일에 열리므로 8일에 보고하고 이튿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자는 게 박 위원장의 제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대표와 심 대표는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결국 2일 탄핵안 표결은 불발됐다.

2일 탄핵 추진이 불발되면서 당초 새누

리당 비박계가 원했던 9일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결국은 국민의당 제안대로 9일 표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탄핵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일 탄핵 표결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뉴시스



김명지 의장 오평근 의원

〈전주시의회 의장·행정위원장〉 김명지·오평근 감사패 수상

'전주시자원봉사자 결산·한마음대회' 서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오평근 행정위원장이 1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전주시자원봉사자 결산 및 한마음대회'에서 자원봉사자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열린 한마음대회는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소통과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의원은 평소 자원봉사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시민 생활 속에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두 의원은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어둡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 퇴진일정 결코 협상대상 될 수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 "퇴진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4월 박 대통령 하야, 6월 대선' 제안을 일축하며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서 이같이 말한 뒤 "탄핵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와 국민이 (탄핵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남경필 "탄핵부터 먼저 해야 퇴진 거부하면 어쩌려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듯이 그때 가서 퇴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조속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국회는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 탄핵이 법치에 기초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4월 퇴진'은 옳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3차 답회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면 왜 국회 권유로 물러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적 퇴로를 모색하려면 탄핵을 통과시킨 후에 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정치적 계산을 거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이병국 청장을 당장 해임하라"며 "동북아 경제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동북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내세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본분 다 못하는 새만금청장 해임하라"

"정부는 지연된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해임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1일 도의회 박재만 의원 등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새만금 개발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곳곳에서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그 우려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종식시키 고자 이 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현안문제에 대해 가장 앞장 서 해결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장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무능력은 새만금 조기개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이병국 청장을 당장 해임하고, 지금이라도 지연된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이상 새만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는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새만금 산단 3공구 석탄재 매립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추진 문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에 대한 소극적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인재용 기자

김관영,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법률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 산업을 둘러싼 기술 환경과 세계 시장 변화 현황을 조망하고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분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경래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고민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 중 하나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개회 취지를 밝혔다.

그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불허하다시피 해온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가 이들 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구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있다"며 "은산분리의 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 제도의 혁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